

## 국회의원(인요한) 징계안

|          |      |
|----------|------|
| 의안<br>번호 | 3762 |
|----------|------|

요구연월일 : 2024. 9. 6.

요 구 자 : 박성준 · 강유정 · 고민정  
김남희 · 김성희 · 김용민  
노종면 · 모경중 · 박민규  
백승아 · 부승찬 · 서미화  
송재봉 · 안태준 · 양문석  
윤건영 · 윤종균 · 정준호  
정진욱 · 조계원 의원  
(20인)

### 주 문

국회의원(인요한)을 「국회법」 제155조제16호에 따라 징계한다.

### 징계사유

가.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국회법」 제24조에 따라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도록 선서하였으며,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회법」 제25조에 따라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자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하며,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지키기 위해 높은 윤리의식을 가져야 함.

나. 그러나 국민의힘 국회의원 인요한은 2024년 9월 5일 목요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도중 본회의장에서 지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국회의원의 우월적 직위를 이용해 병원에 수술을 청탁하는 부정청탁과 직권남용이 의심이 되는 내용을 주고받은 것이 확인되었음.

다. 문자 내용에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인요한에게 “부탁한 환자 지금 수술 중 조금 늦었으면 죽을 뻔 너무 위험해서 수술해도 잘 살 수 있을지 걱정이야”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국민의힘 국회의원인 인요한은 “감사감사”라고 답을 하였음.

라. 현재 우리나라는 심각한 의료대란이 현실화되고, 응급실 축소 운영 등으로 의료붕괴 위기에 직면하면서 치료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응급상황에서 제대로 된 치료는커녕 입원조차 하지 못해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국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국민들이 응급실을 찾지 못해 속칭 ‘응급실 뽕뽕이’를 돌고 있다는 보도가 연일 터져 나오고, 이로 인해 안타깝게 명을 달리 하는 환자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마. 윤석열 정부는 근거도 이유도 제시하지 못하는 의대정원 증원을 시작으로 의·정갈등 상황을 풀어갈 해결 능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

을 뿐만 아니라 의료대란의 해결을 위한 대안과 대책도 제시하지 못해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해 있음.

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의료대란을 바라보는 인식이 국민과 상반되고 괴리가 있다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나서서 이를 중재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하지 못할망정 거꾸로 국회의원의 직위를 이용해 부정청탁을 하는 행위는 의료붕괴 사태에 울분을 터뜨리고 있는 국민에게 실망을 주고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부정 청탁한 환자로 인해 치료받아야 할 환자 누군가는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만드는 피해를 유발한 행위임. 이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금지하고 있는 ‘부정청탁의 금지’에 해당하고,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3조 ‘청렴의무’를 위반한 것임. 또한 직권남용 위반 소지가 다분함.

사. 국민의 대표자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국회의원의 의무를 저버린 국민의힘 인요한 국회의원 지인과 주고받은 메시지는 대한민국 국회의 명예와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회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임.

아. 이에 국회의원 인요한은 「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제2호, 제3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

규범」 제2조(품위유지), 제3조(청렴의무), 제4조(직권남용금지)를  
현저히 위반하였으므로, 「국회법」 제155조제16호에 따라 엄중히  
징계할 것을 요구함.